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음 9월 11일) 제16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내년 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펀드 전문인력 이탈 현실화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6개월 내 전문인력
4명 중 1명 계약 만료
“퇴직자들 스펙쌓는
징검다리 이용” 지적도



10일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내년 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앞두고 전문인력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전문인력 이탈과 신규채용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주 이전의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2월 본부의 전주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540조원이 넘는 연금기금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운용 전문인력 215명 중 50명의 계약이 만료된다.

이전 후 6개월 안에 기금운용 전문인력 4명 중 1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본부를 떠난 기금운용 전문 인력은 2013년 8명, 2014년 9명, 2015년 10명, 2016년 12명(7월 5일 기준)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기금운용 전문인력 30명을 뽑으려 했지만 지원자 중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해 22명만 채용하는데 그쳤다.

기금을 관리하는 인력수급에 벌써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해외 인프라 투자와 해외 채권 운용을 총괄하던 팀장 두 명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한 직간접적으로 시의를 밝힌 실무자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로 갈수록 실무 핵심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은 이력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퇴직자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2010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퇴직자 81명 중 77.8%인 63명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63%의 근속연수는 3년 이하에 불과했는데 대부분 퇴직자가 민간 금융기관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 재직 후, 스펙 쌓고 몸값 올려 민간금융기관으로 승진, 되돌아가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펙 쌓는 ‘징검다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전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과 신규 인력 채용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주 이전 후 계약만료를 앞둔 전문인력 55명에 대한 재계약 문제를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대학 정원감축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두배... 서울은 평균 2.1% 감축
교육부 정원감축정책, 지방대 위주로 진행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 전북 지역 대학의 정원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2013년 대비 올해 현재 2만 1,867명이 감축됐다.

감축된 정원 2만 1,867명 중 전북 8개 대학에서 2,034명의 감축이 이뤄져 지난 2013년에 비해 11.1%의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도로 감축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6.4%의 두배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광주가 9.2% 감축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북 8.8%, 전남 8.7%, 경기 7.7%, 부산 7.6%, 대전 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정책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대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소재 39개 대학은 평균 2.1%를 감축하는데 그쳤다.

특히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넓혔을 경우에는 평균 4% 감축에 불과했다.

한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인 1주기 정원감축은 2014~2016년에 진행됐으며, 2주기 정원감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전북발전 위해 노력할 것” 진흥 정무부지사 취임

진흥 전북도 정무부지사(전 한국 생산성본부 회장)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진흥 정무부지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 이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정을 만들고 항상 협업하며 함께 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전북 발전과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쌍둥이 형제에게 이름 지어주세요”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을 시작한 이후 새로운 가족이 된 시베리아호랑이 쌍둥이 형제의 이름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동물원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장 슬픈 동물원에서 가장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주동물원은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인 시베리아호랑이 쌍둥이(수컷 2마리)의 탄생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아기 호랑이의 이름을 전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페이스북, 전주동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한다. 쌍둥이형제 호랑이는 전주동물원의 호랑이·사자사 환경개선이 이뤄진 후인 지난 6월 28일 탄생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쌍둥이 호랑이 이름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시베리아호랑이의 보전 가치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의미 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현재 동물원 내 새로운 호랑이사에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쌍둥이 아기호랑이와 엄마 수호, 아빠 호강, 누나 춘향(2살) 등 다섯 마리의 시베리아호랑이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아기 호랑이들은 몇 달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대를 형성하고, 초유를 먹으면서 인지 능력과 면역력을 발달시키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낚고 비좁은 호랑이사를 시설개선을 통해



전주동물원의 쌍둥이 호랑이.

전주시, 동물원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 탄생 100일 맞아
오늘부터 1주일간 홈페이지·페이스북 등에 공모 접수

관람객과의 격리를 위해 설치된 함정을 흙으로 메우고, 호랑이들에게 활동 공간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넓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또, 수목을 이용한 차폐를 통해 한 정면 구간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전시법을 도입해 호랑이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에는 지속적인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해 동물원 관리사무소 옆에 넓고 쾌적한 환경의 늑대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된 비좁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곰들에게는 기존 곰사를 허물고 많은 수목이 심어진 넓은 곰사를 신축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동물원이 38년 만에 슬픈 감옥형 우리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와 생태, 종보전을 생각하는 기적의 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쌍둥이 아기호랑이의 탄생은 가장 슬픈 동물원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원으로 가는 길목에 상징적인 축복이자 우리아이들에게 큰 선물이다. 전주동물원을 시민들과 함께 꿈꾸고, 꿈을 담은 기적 같은 동물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베리아호랑이는 현존하는 호랑이 개체 중 가장 큰 체구를 지니며, 다른 호랑이들에 비해 콧등이 다소 넓고 낮고 입 주변과 후두부, 목 뒷부분으로는 긴 털이 자라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베리아호랑이는 새끼를 기를 때 동굴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주로 이용하지만, 현재는 자연환경 오염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김영재 기자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

태권도원

전 세계 태권도인이 꿈꾸는
체험, 수련, 교육의 중심에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p>태권도 시범공연</p> <p>고난도 신기술과 품새 격파가 어우러진 시범공연 1일 2회 무료 상설 공연</p>	<p>국립태권도박물관</p> <p>무예도보통지 진품이 있는 세계 최초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유물과 전문자료 전시</p>	<p>T1경기장</p> <p>세계 최초, 최고 태권도 전용경기장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주 경기장</p>
--	--	---

태권도원 홈페이지 <http://www.tkdwon.kr>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T. 063-320-0114 F. 063-320-0054